

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초대교회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분파주의

- 분파주의
 - Sect, Sectarian(분파주의자)
- 3세기의 Novatianism -----3세기
 - Decius 황제 박해 후의 배교자 귀환, 수용 문제
 - 노바티안, 변절자에 대한 극단적 징계
 - 살인,간음,거짓증거 등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배교는 불용
 - 313년 이단 정죄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4세기 도나투스 ----- 북 아프리카 카르타고
 -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후
 - 감독 키프리아노와 ‘고백자’들과의 갈등
 - 배교의 양상
 - 이단들에게 경전을 넘겨주다
 - 이교의 신에 대한 예배
 - 배교자 수용의 양상
 - ‘고백자’들이 자의적으로 배교자 수용
 - ‘고백자’들이 감독과 교회 지도자 정죄(배반자)
 - 감독 선출 문제로 비화
 - 새 감독: 카이실리안 Vs 마조리누스 각각 선출 (도나투스 선출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도나투스주의 전개

- 도나투스 감독 선출 후 50년 간 유지
- 콘스탄틴의 입장
 - 가이실리안과 교제하는 자들만 특혜(면제조처)
- 도나투스 분파의 형성 이유
 - 신학적, 정치적, 경제적 이유
 - 신학적 이유
 - 성직 임명/ 성사의 유효성 문제
 - 자격 없는 감독에 의해 시행된 안수와 성직 무효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인간의 자격과 가치 여부에 좌우될 수 없는 성사
- 세례와 성찬의 유효성
 - 성례전의 무효
- 카이실리안의 추종자가 도나투스파로 갈 때
 - 재 세례
- 도나투스파 추종자가 카이실리안으로 왔을 때
 - 재 세례 x
- 경제적 이유
 - 도나투스의 지역 ----- 1차 생산자
 - 카이실리안 지역 ----- 유통의 요충지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정치적 이유
 - 콘스탄틴의 등장 이전 빈부/계급의 차이
 - 콘스탄틴의 등장 이후 계층/계급의 갈등
 - 훌륭한 로마 시민인 동시에 충실한 기독교 신자
 - > 교회의 부패로 이해
 - 카이실리안은 로마화 된 기독교 신자들의 지지
 - 도나투스파는 박해 때 약한 모습을 보였던
 - 누미디아 성직자들의 지지
 - (콘스탄틴 이전에 귀환한 자들)
- 340년경 도나투스 내에 '키르쿰켈리온' 집단 등장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논쟁의 전개
 -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와 아리우스의 충돌
 - 알렉산더: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.
 - 아리우스: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.
 - 모든 피조물 중 으뜸인 존재
 - 말씀의 선재 동의
 -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다.
 - 알렉산더: 말씀은 창조될 수 없다. 성부와 함께 영원.
- 아리우스: 알렉산더가 기독교 유일신론 부인한다!
알렉산더는 결국 두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!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알렉산더: 아리우스는 말씀의 신성을 부인한다
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
피조물을 예배하고 있다고 선언해야 하는가?
- 문제의 핵심
 - 구원의 방식의 문제
 -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‘인류 역사에 들어오시어’
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.
 - “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,
신이라면 그러한 순종은 무엇인가?” (아리우스)
- 결과 -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 축출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니케아 공의회

- 콘스탄틴에서 가까운 거리
- 325년, 300여명 정도 참석
 -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 출신과 서방교회 대표들
- 시련을 겪었던 감독들에 대한 황제의 대접
- 교회의 보편성을 증언하는 최초의 공회
- 가이사라 유세비우스 증언
 - “...콘스탄틴은 이 평화의 때는 줄로 하나의 화관을 엮어서
대적을 물리친 승리에 대한 감사로 구세주에게 바친 최초
의 통치자였다...”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의제
 - 성직 및 교구 제도 기준
 - 아리우스 논쟁
- 아리우스 논쟁의 주도
 -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주도하는 아리우스파
 -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
- 논쟁의 쟁점
 - 세 위격들과 한 본질의 문제
 - 성부고난설 -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므로
 - 말씀 혹은 성자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해도 피조를 불과?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신조의 필요성
 - 성경 구절만으로 사용할 경우 명확하게 아리우스주의에 반대를 표현하기 어려움
- 신조의 내용
 - 호모우시우스 (동일본질) ----- 콘스탄틴의 제안
 - "...우리는 성령을 믿는다.
'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.' '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.' 라고 말하는 사람들,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, 다른 히포스타시스/ 우시아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,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, 변할 수 있으며,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, 보편교회는 저주한다."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니케아 신경의 중요성
 - 서방 교회뿐 아니라 동방, 그리스, 러시아 정교회에서도
 - 사도신경은 서방교회(가톨릭, 프로테스탄트)에 기원
- 주요 항목
 - 성자/ 말씀(로고스)이 피조물이거나 신성에 있어 성부보다 떨어진다는 개념 배경
 - "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며, 빛에서 나신 빛이며,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다"
 - 성부 하나님을 "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"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성자가 “창조되지 않고 나셨다” 라고 선언함으로
-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
- “유무형한” 사물들로부터 배제되는 것.
- ※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!
- 니케아 공의회 후
 -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의 역전
 - 아리우스파에 의한 니케아파 축출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배교자 줄리안

- 콘스탄틴의 사후 숙청과 생존
 - 즉위: 콘스탄틴의 세 아들
 - 생존한 친척: 갈루스와 줄리안 형제
 - 콘스탄티우스 집권 후
 - 갈루스 계승 --- 참수
 - 줄리안 -- 아테네에서 철학 연구
 - 가이사라의 바실과 접촉
 - * 고을 지역 통치 -- 평정
- 콘스탄티우스 사후 집권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줄리아의 종교 정책

- 선왕 콘스탄틴과 그의 아들들
 - 이교 고대 신전 약탈
 - 기독교 옹호 법률 입법
- 줄리안
 - 이교 복고
 - 약탈한 예술품과 장식품 환수
 - 이교 직제 개편 후 ‘최고 사제’
 - 제사 복고뿐 아니라 구제와 자선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동물 제사 복구
 - 수백 마리의 황소와 짐승 제사
- 기독교 박해
 - 지방 관리에 의한 폭거
- 기독교 발전을 저지하는 법안 두 가지
 - 1) 기독교인에게 고전 문학 교육 금지
(신성한 고전 모독 금지)
 - 2) 기독교인 멸시
 - 기독교인 = 갈릴리인
-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 (목적: 예언 훼손)
